

한경보 회장 건설산업비전 포럼 참석



토론회 참석 주요 인사.

한경보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 포럼(고문 선우중호 전 명지대 총장) 주최 정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용민 조달청장의 '정부조달 정책방향과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던 이날 토론회에서 한경보 회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건설안전을 위한 평가제 도입 검토를 요청 하였다.

김용민 조달청장의 주요 발표내용 중 건설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공사업체 선정시 건설안전 평가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조달정책 추진현황

2002년 나라장터를 구축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이용자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자조달 단일창구로서 정착되어 3만5천여 공공기관과 15만여 조달업체가 이용하여 연간 44조원이 거래되는 큰 장터로 성장함. '04년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전자조달체제를 구축해 정부기관 최초로 웹콜센터 설치('04),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운영('04), 현장 납품검사('06) 등을 통해 고객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중심으로 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맞춤형(On-Demand) 조달서비스를 시설공사에 도입('04)한 후, IT분야는 물론 물품·용역 분야로 확대('05~'06) 하고, '1물품, 다수공급자' 방식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제도를 도입('05)한데 이어, '06. 7월에는 공공기관 최대의 종합쇼핑몰 개통,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요청하는 학술, 정보기술, 폐기물 등의 용역

서비스도 연간공급계약을 통해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공급 가능토록 하고 있음.

I. 건설분야 업무추진 현황

1.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체조달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지원

- 가. 대형공사의 원가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8,000억원 수준의 국고절감에 기여
 - 5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총사업비를 검토하고, 그 범위로 물가변동 및 민자사업('03년), 설계변경('04년), 감리비 물가변동('05년) 분야로 계속 확대 적용
 - 자율구매 범위 확대에 따라 100억원이상 지자체 자체발주 공사 원가에 대한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II. 세부 추진계획

1. 선진 건설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 가.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 고품격 시설물 획득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
 - 우수설계 및 고품격 시공 확보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발
 - 가격 위주의 경쟁에서 기술·능력 위주의 경쟁으로의 전환
- 나. 공사종류별로 건설업체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확대 운영
 - 터널, 항만시설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PQ대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 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입찰자격부여
 - 입찰참가 제한의 목적이 아닌 업체의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수주기회 보장
- 다.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공사발주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
 -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 라.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물가변동 검토 등 대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요기관의 편의 제공

- 공사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요기관이 어려워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검토업무 지원

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이용 활성화

- 공사현장과 조달청간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CITIS)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사관리 업무의 생산성 제고
- * CITIS : Contractor's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수요기관으로 확산하여 자체 공사관리업무 수행 지원 및 투명성 제고

바. 공사현장 관리의 e-공사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는 e-공사관리시스템 도입
- e-공사관리 시스템을 현장의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자와 공유하고 전 현장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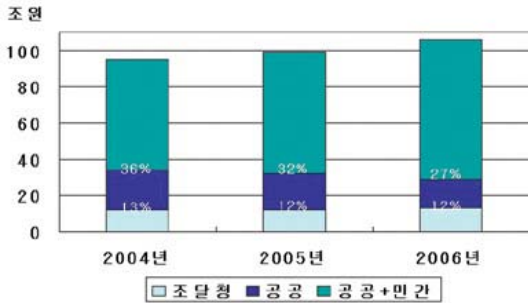
III. 공공건설에서의 조달청 역할

1. 정부공사 발주체계 및 현황

- 가. 우리나라 정부공사제도 중 정책수립 및 법령관장은 재경부, 건교부 등에서 담당하고, 집행은 조달청 및 각 공공기관에서 담당
 - 공사계약 관련 법령은 재경부(국가기관), 행자부(지방자치단체), 기예처(정부투자기관) 등이 담당
 -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법령은 건교부, 공정위(하도급) 등이 담당
- 나.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발주를 담당하고, 기타 공사는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
 - 조달청은 국가기관의 30억원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500억원 이상 PQ와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전담 발주 창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발주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
 - ▶ 500억원 미만 PQ 대상 공사 : 2007. 1. 1
 - ▶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 : 2008. 1. 1
 - ▶ 2010. 1. 1 : 일괄·대안 입찰 대상 공사(완전 자율화)
 - * 지자체 자체발주 범위 확대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조달청에서 공사가원가 사전검토

다. 공공건설시장에서 조달청의 비중

- '06년 기준으로 공공건설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시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건설시장 전체의 약 43%, 우리나라 전체 건설시장의 약 12%를 담당



2. 정부공사 발주에 있어서 조달청의 역할

가. 제도·절차·관행의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 선도

-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도 정착
- ▶ 변별력 확보를 위한 PQ / 적격심사 세부 집행기준 개선
- ▶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발주기관들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 Bench-marking 대상

나. 정보공개와 통일된 기준·절차로 발주의 투명·공정성 확보

- ▶ 나라장터 등 인터넷을 통해 모든 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을 통해 전 행정기관으로 조달행정의 공정·투명성 보편화
- ▶ 명확한 제도·절차·관행의 정립과 공개로 업계 예측가능성 증대
- ▶ 정부계약 전문기관으로 조달청의 기준·절차 등은 다른 기관 조달업무 수행의 Bench-Marking 대상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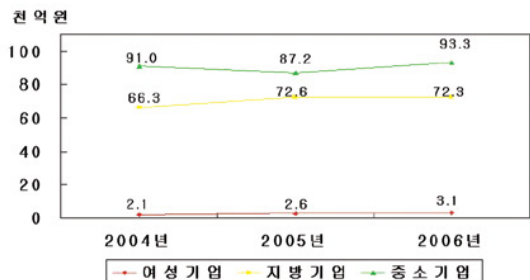
- ▶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철저한 가격 조사·관리, 설계의 중복·오류와 과대·과소 설계 시정 등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 ▶ 총사업비 실시설계 사전검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검토, 민자사업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기능

수행

- ▶ 공무원가계산, 총사업비 검토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 예산 절감

라. 중소·지역·여성업체 육성 지원 등 정부정책 실효성 확보

- ▶ 중소·지역 건설업체 지원 : 지역제한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PQ/적격심사 가산평가 등
- ▶ 여성 건설업체 지원 : 소액공사(일반 1억원, 전문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기회 우선 제공



마. 정부공사 발주의 신속적 운용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

- ▶ '07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계획(약 12조 7천억원)의 66%(약 8조 4천억원)를 상반기 중에 집행 예정
- ▶ 행정 소요기간 단축 및 수요기관별 전담팀 구성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유도

3. 현행 정부공사제도 문제점

가. 평가기준의 지나친 객관화·계량화로 기술력 평가 곤란

- 건설기술의 발전과 고품격 시설물 조달을 위해서는 기술경쟁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나 가격위주로 사업자 선정
-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객관화·계량화한 결과 업체 평가의 변별력이 없고, 경쟁력 없는 업체도 손쉽게 공공시장에 진입

나. 입찰참가업체 과다로 실질적인 심사 곤란

- 객관적 실적 위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므로 입찰참가가 용이하고 참가업체 과다로 기술력이나 저가투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곤란

※ 토목·건축공사(50억원 이상) 평균입찰참가업체 수 : 한국 (약 390개), 미국(약 4.7개)

다. 형식적 공동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비효율 초래
 -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측면에서 운용되어 업체 평가의 변별력 저하 및 공사의 비효율을 초래
 - 시공기술 이전, 경험축적 등의 목적보다는 점수보완 목적으로 활용되며, 시공과정에서 이행점검이 곤란하여 형식적 위장공동도급이 상존

라. 하드웨어인 건설공사 중심의 발주방식으로 종합관리 기능 취약
 - 시공업무 중심으로 입찰·계약제도가 규정되고 있어 건설 용역, 사업관리 등과 관련된 입찰·계약제도는 미비

마.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부작용 양산
 -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그 부작용으로 저가하도급 및 부실공사 등 부작용 야기

바. 보증·감리제도 등 관련제도의 취약으로 부적격업체 차단 곤란
 - 보증·감리제도와 입찰·계약제도의 연계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제한기능이 취약

4.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안)

가.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 우리나라 정부공사제도 중 설계·시공분리형은 주로 가격 요소 평가에 치우쳐 있으며,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비가격요소의 지나친 계량화로 인해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이 미흡
 - 설계·시공일괄형은 지나치게 설계우수성 평가에만 집중되어 그 외 총생애주기비용, 시공능력, 설계의 심미·창의성 등의 기술력 평가요소가 미흡

나. 현황 및 문제점

- PQ, 적격심사 등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제도들의 지나친 계량화로 기술평가 변별력이 부족
- PQ심사 : 기술평가 요소인 경영상태, 공사이행능력 등이 지나치게 계량화되어 있어 대부분 참가업체가 만점을 획득하여 적격업체 선정기능이 미약
- 적격심사 :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의 변별력 부족으로 가격적중률에 의해 낙찰자 결정

| 구분 | 개선방안 |
|------|---|
| PQ심사 | - 기술능력 평가비중 상향 조정 - 공중별유자격자명부제 확대 |
| 적격심사 | - 공사수행능력 평가지표 개발 - 공사수행능력 비중 상향 및 사후평가 지표 신설 |
| 저가심사 | - 저가심사 대상공종을 세부공종까지 확대 - 신기술·공법 절감사유 인정 |
| 설계심사 | - 경제성 VE* 평가 내실화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이의제기절차 구체화 |

* 경제성 VE 평가 : 주요자재 및 구조형식, 적용공법 등에 대한 경제성검토서제출을 의무화하여 설계심사시 경제성을 평가



◆ 건설산업비전 포럼 정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중인 김용민 조달청장

《 우리나라 정부공사제도 기본골격 》

| 구분 | | 시공중시 설계·시공 분리형 | 건설생산체계 설계·시공 일괄형 | 사업관리중시 건설사업관리형 |
|--------------------------------|-------------------|----------------------|-----------------------|-------------------|
| 비용경쟁 ↑ 경쟁유형 ↓ 기술경쟁 | 가격 요소 고려 | 최저가낙찰제 (300억원 이상) | | |
| | 가격 및 비가격 요소 고려 | 적격심사제 (300억원 미만) | 일괄·대안입찰 (100억원 이상) | CM for fee |

‘안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IOC 회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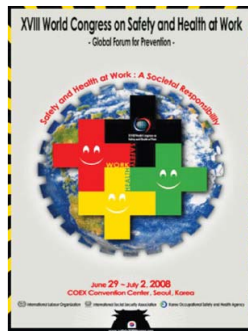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국제조직위원회(IOC)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5월 11일(금)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2008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 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국제조직위원회(IOC)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08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준비회의로서 안전보건 대표자회의, 대륙별 회의, 심포지엄 등 대회 운영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대회 후원정책, 홍보활동 등 대회 개최관련 주요내용을 논의하였다.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국제조직위원회(IOC)는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이다.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및 개최기관 3자가 공동으로 매 3년마다 개최하는 안전보건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대회로 안전보건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노·사 단체, 안전보건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기간 중에는 △각 국가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대표자 회의 △각 국가별 대표자들의 기초연설 △분야별 기술세션 △안전보건 심포지엄 △대륙별 회의 △국제 필름·멀티미디어 페스티벌 △국제안전보건기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산업안전공단은 내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아시아권에서는 1993년 인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건설사고 재발방지 강화

앞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품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잘못된 업체 및 건설기술자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용역업자는 고의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일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부실별점도 부과됨은 물론, 과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협회 독일 산재예방조합과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심포지엄 공동 개최키로

우리협회는 독일의 산재예방조합인 BGBAU와 내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대회기간 중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키로 하고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협회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독일 산재예방조합(BGBAU)과의 공동 심포지엄에는 BGBAU의 Prevention Services 부문 Director(이사)인 Karl-Heinz Noetel씨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5월 10일자 답신을 통해 대회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 건설산업 안전현황 등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우리협회와의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한경보 회장 JAD · 중앙디자인 방문



① 간담회 광경

② JAD 본사의 인앤인 브랜드 로고 앞에선 간담회 참석자들 JAD건설 홍재학 건축본부장, 우리협회 최재천 명예회장, 한경보 회장, JAD 변인근 회장, JAD건설 손영재 대표이사(사진 좌로부터)

한경보 회장은 지난 5월3일 최재천 명예회장과 JAD 건설 및 중앙디자인을 방문해 변인근 회장과 JAD건설 손영재 대표이사 홍재학 건축 본부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대담에서 한경보 회장은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회사로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은 중앙 디자인과 짧은 역사임에도 인&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JAD건설의 약진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991년 중앙디자인으로 출발한 JAD는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보다 크고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 올해에도 신규 시장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혁신적인 원가 경쟁력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아가고 있다. 자드건설, 중앙디자인, 자드미디어웍스의 JAD는 ONE-STOP SERVICES를 통해 건설의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토털 솔루션으로 명품공간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다.(관련기사 8~15p)



제81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협회 방문

지난 5월 3일 제 81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11명이 협회를 방문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 안태호·하재근 전문위원 등과 협회 현황 등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쌍용건설 김민경 부장 등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들은 바쁜 회사 업무에도 불굴의 학구열로 합격의 영광을 이루어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제는 건설안전에 관한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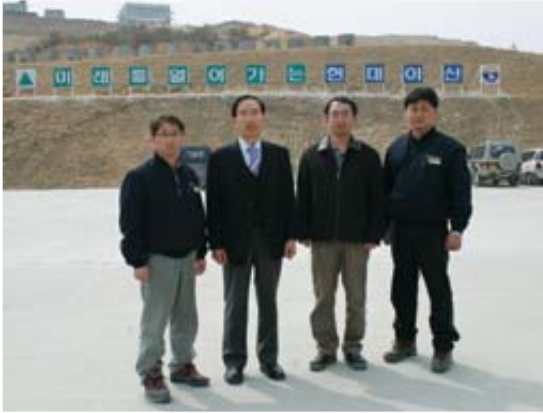
민국 최고의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회를 찾은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말은 바 업무 분야는 물론 향후 안전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쌍용건설 김민경
- ▶ 삼환기업(주) 김현구
- ▶ 현대건설 이양진
- ▶ 윤일건설(주) 김상호
- ▶ 한국산업안전공단 오세종
- ▶ 삼성건설 최재용
- ▶ 지승구조건설(주) 고효석
- ▶ 대림산업(주) 이종배
- ▶ 롯데건설(주) 이명권
- ▶ 대한종합안전(주) 이정기
- ▶ 쌍용건설 천봉근



안태호 전문위원 개성공단서 특강



안태호 전문위원은 지난 3월 22일 개성공단 시공업체인 현대아산의 초청으로 현대아산 직원과 남측 협력업체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공중별 위험성관리, 작업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등 건설현장 안전 사고예방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교육에 참가한 한 근로자는 남북경협사업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이곳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감회는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협회는 공사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공사 관련 안전점검·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무재해 현장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다.(개성공단 현장은 사진촬영 제한구역으로 북측 관리자에 의해 촬영되어 제공받은 사진임)



우리협회 최용화 이사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사 자문단장으로 위촉



“가구와 싱크대 부분, 특히 도배지 부분 쪽의 마감도를 보고 있고, 발코니 부분의 안전도, 난간의 구조적인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최용화 이사는 지난 5월 26일 YTN, MBC등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갖고 경기도가 도입한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MBC와 YTN등의 언론사는 뉴스보도를 통해 경기도가 도입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단장 최용화·우리협회 이사) 전문가 9명이 준공검사를 앞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평택, 고양시 등 여섯 곳에서 전문가들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밟아보고, 실새 없이 고칠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아파트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조경, 실내 가전, 가구품질 등 모두 6개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올해 초 경기도가 도입한 제도로 이들의 검사결과는 지자체로 통보된 뒤 준공 검사 때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시공업체 측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 제도가 실시된 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민원건수도 30%나 줄었다고 집계한 경기도는 올해 분기당 3곳씩 12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정시설 배수 문제나 옥상의 안전 문제 등 입주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부실시공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협회 소방방재청과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키로

우리협회는 소방방재청과의 업무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경보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소방방재청 방기성 본부장을 예방, 향후 소방방재청과 협의 가능한 업무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 복구시 참여해야 하는 방재전문가로 방재안전 System을 총괄관리하고 인적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사로서 방재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민간전문가입니다.

1.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사 관련

-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 ※ 자연재해대책법 제 32조 관련 별표 3항의 필수 및 업무분야별 인력기준에 건설안전기술사를 포함하여 방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2. 방재관련 응원협정 체결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재난관련 대응장비와 첨단 비파괴장비의 현대화로 재난의 사전예방 및 복구대응 할

수 있는 특화된 민간단체로서 관련기관과의 응원협정 체결

3. 기타 업무협의 및 방재관련 건의 내용

- 1) (가칭)「방재안전관리공단」 설립시 (특)한국방재협회와 업무 교류 및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전사적 지원체제 확립
- 2) 안전사고 발생 또는 우려시 차별화된 분야별 민간전문가 확보에 따른 복구 및 안전대책수립 요청시 인력지원
- 3) 회원(건설안전기술사)의 소속업체 관계자 및 안전교육시 재난관련 컨설팅 및 홍보(관리감독자 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공무원 교육, 초빙강연)
- 4) 소방방재청 방재업무관련 민간전문가 위촉시 우리 협회 전문가(회원포함)를 위촉 요청

4. 현재 입법추진중인 급경사지 안전성평가분야에 건설안전기술사 참여 등을 건의함



○ 지난 5월25일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제14회 방재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문원경청장.(사진제공 · 소방방재청)

지난해 재해자수 4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수는 8만9911명으로 2005년 대비 4500명(5.3%)이 늘어났고 재해율은 0.77%를 기록, 2005년과 같았다. 사망자수는 2454명으로 2005년보다 39명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도 2.10으로 0.15P 감소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 중에서 업무상사고자는 7만9676명, 업무상질병자는 1만235명으로 집계됐으며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1333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1121명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이 감소한데 비해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6명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레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사고성 재해의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유형의 재해로 4160명의 재해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3.5%가 발생, 2005년보다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5조8188억4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4.56% 증가한 수치다.

협회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해



우리협회 임·직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이 지난 5월 14일 오전 메디모아플러스 병원 검진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기위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

방의학에 기초를 두고 건강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날 기초검사를 비롯해 심전도, 식도, 위, 소장, 흉부검사, 초음파검사 및 치과 진료 등을 실시한 강남구 삼성동의 메디모아플러스 병원(입원실 25실, 병상수 52병상 규모)은 2004년 개설된 종합병원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외과 원장 등을 역임한 이엽 원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의가 신경외과, 내과, 성형외과 통증클리닉, 치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방사선과, 종합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정상의 임상검사센터로 진단의학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국내정상의 임상검사센터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내용 혈액 및 소변검사 정확도 국내정상의 의로기관이다.

환경과 첨단이 어우러진 신개념 아파트가 눈앞에

삼성 래미안,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 열어 사람과 자연이 상호 소통하는 주거 환경 제시

삼성물산 (사장 李相大) 건설부문이 지난 4월 11일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를 열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소통하는 주거 환경과 혁신적인 감성 디자인 등을 선보이며 주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는 주택 업계 유일의 정기 신상품 발표회로, 매년 새로운 기술과 미래 주거문화를 제안해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04년에는 「주거성능주의」를 표방,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며 Well-Living 트렌드를 개척했고, 이듬해인 05년에는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과 집이 어우러진 「래미안 U 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거문화에 대한 기준을 세운바 있는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앞의 두 컨셉을 확장, 발전시켜 사람과 집, 미래,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공간 개념 「Housing



● 래미안 스타일 발표회 현장

Convergence」를 소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07 래미안 스타일」에서는 「Housing Sphere」라는 새로운 컨셉을 선보였다. 07 래미안 스타일-Housing Sphere」는 4월 11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관련 업계 및 학계 주요 인사에게 우선 공개되었는데, 4월 20일 이후에는 건축, 디자인, 환경, 에너지, IT·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현대건설 해외수주 34억 달러 달성한다

현대건설(사장 李鍾洙)이 4월 26~27일 서산농장에서 2007년 해외사업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해외에서 34억달러를 수주기로 결의했다. 현대건설은 이종수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원과 해외 14개국 지사장 및 15개 현장 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정신이 깃든 서산농장에서 해외사업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현대건설의 해외공사 수주목표는 지난해 실적인 24억4,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34억달러로, 사업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플랜트 18억5천만 달러, 전기 7억2,500만 달러, 토목 4억5천만달러 등이며, 향후 중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 사상 최대의 해외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수 사장은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건설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석유화학, 발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량확보 위주의 수주를 지양하고, 고기술 고부가가치 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환율 유가 등 경영 외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수주한 총 9,881만달러(원화 약 938억원) 규모의 초고층 고급콘도미



니엄 신축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 총 2억 3,193만달러(원화 약 2,20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정제시설공사 수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 및 가스산업 관련 분야 및 인프라시설 구축공사 등에 걸쳐 대형공사들이 집중적으로 발주될 예정으로, 해외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초고층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항만 및 발전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지역 등지로의 사업확대로 적극 고려하고 있어, 올해 해외사업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호건설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성금 전달



● 종로 지역아동센터에 성금을 기증하고 있는 금호 어울림 자원봉사단

금호건설이 임·직원 끝전 모으기로 모은 성금 6,790,060원을 종로구 관내 한누리 지역아동센터와 종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4월 12일 종로구청에서 이연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의 성금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 직원급여 중 천원미만 금액을 기부해 적합한 성금과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일대일로 매칭, 추가 기부하여 조성된 것이다.

금호건설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끝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모은 소중한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사상 최대규모 항만하역장비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李南斗)이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규모의 항만하역장비로서는 사상 최대 프로젝트를 이집트로부터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다미에타(Damietta)항이 발주한 초대형 항만하역장비 국제경쟁 입찰에서 독일, 일본, 핀란드 업체를 제치고 1천144억원(1억 2,282만 달러) 상당의 초대형 항만하역장비 1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 장비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여 오는 2009년 2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항만하역장비는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선박으로 적재하는 장비로서, 최대 65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며 부두에서 바닷쪽으로 도달거리가 62m로 현재 운항중인 컨테이너 선박 중 가장 큰 크기인 22열 컨테이너선의 화물까지 단번에 처리가 가능한 초대형 장비이다.

이집트 지중해연안 수에즈운하 인근 70Km에 위치한 다

미에타항은 지중해의 대표적인 허브항만의 하나로서, 쿠웨이트 KGLPI사가 40년 양여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된다.

두산중공업 박경호 상무(운반설비BU장)는 “한동안 세계 항만하역장비 시장은 저가전략을 펴온 중국 업체들이 휩쓸었으나,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고품질 장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고 유럽, 일본 업체들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다미에타항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등 항만개발을 추진 중인 중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싱가포르 PSA 사로부터, 선박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야적장에 적치하는 장비인 RTGC(Rubber Tyred Gantry Crane) 122대를 3차에 걸쳐 총 1,420억 원에 수주, 지난 1월에 납품 완료한 바 있다.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기법 도입 절차 가시화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6개 공공 발주기관과 안전기술정보 공유, 역할분담을 통한 재해예방 공감대 형성, 시기별 합동 점검 수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지난 4월 26일 공단본부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부산교통공사 안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점검 방법 개선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들을 실제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내 건설공사는 경우



○ 사진은 작년 8월 24일 우리협회에서 있었던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자문 회의'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한편 이번 간담회 이후 산안공단, 발주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

의 안전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경표 산안공단 건설안전실장은 “공공 발주기관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 및 발주기관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합동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등 다각도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